

BEING AND BELONGING



DAY WITH(OUT)
ART 

DAY WITH(OUT) ART 2022: BEING & BELONGING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16:00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참여작가
산티아고 레무스 & 카밀로 아코스타 헌터텍사스 (콜롬비아)
카밀라 아르세 (아르헨티나)
다비나 “디” 코너 & 카린 헤이즈(미국)
김재원 (한국)
미키키 (캐나다)
조엘 썬포알테카 & 라 예리 (멕시코)
클리포드 프린스 킹 (미국)

아트선재센터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전 세계 HIV+ 아티스트들의 시각에서 HIV/AIDS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는 Visual AIDS와 협력해 상영 프로그램 〈Day With (out) Art 2022: Being & Belonging〉을 진행합니다. 본 상영 프로그램은 7편의 단편 영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많이 다뤄지지 않아 온 HIV와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나라의 HIV 감염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작품들은 섹스와 친밀감(intimacy)을 모색하는 것부터 낙인과 고립을 직시하는 것까지, HIV 감염인의 정서적 삶에 중점을 둡니다. 사랑, 보살핌, 그리고 소속감을 요구하고 제공하는 방식은 HIV 감염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본 프로그램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삶의 터전 위에서 권리를 요구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니다.

《Being & Belonging》은 ‘Day With (out) Art’/2022년 세계 에이즈의 날과 연계해 미술관 및 미술 기관 100여 곳에서 개최됩니다.

Day With(out) Art
Visual AIDS는 1989년에 ‘Day Without Art’을 처음 선보였다. 미국 전국의 박물관 및 미술 기관과 협력해 미술 작품을 가지고, 전시장 불을 끄고, 심지어 하루 동안 문을 닫는 등의 행위를 통해 예술과 예술가가 없는 섬뜩한 미래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2014년부터 Visual AIDS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에이즈 판데믹에 반응하는 단편 영상을 커미션 했다. 또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자 ‘Day With(out) Art’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일 새로운 상영 프로그램을 공개해 왔다. Visual AIDS가 커미션 한 40 편 이상의 영상들은 video.visualaids.org 에서 관람할 수 있다.

Day With(out) Art 웹 사이트
video.visualaids.org
Day With(out) Art 2022 웹 사이트
https://dwa2022.visualaids.org/

Visual AIDS
1988년에 설립된 Visual AIDS(NY)는 AIDS에 맞서기 위해 예술을 활용하는 유일한 현대 예술 기관이며, HIV 감염 예술인을 지원하고 에이즈로 잃은 예술인들의 유산과 예술적 기여를 보존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1997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이다. '실천'과 '연대'라는 활동원칙 아래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버전에서는 부가 정보가 포함된 원문(영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English resource guide. Scan the QR code below to access.



《Being & Belonging(존재와 소속)》은 국제 공모를 개최해 HIV와 AIDS와 관련해 많이 다뤄지지 않은 이야기에 주목하는 영상 기획서를 받았다. 에즈라 베누스(Ezra Benus), 호르헤 보데요(Jorge Bordello), 로라버스 리마(Lauraberth Lima), 그리고 니코 위돈(nico wheadon)을 포함한 예술가 및 큐레이터 심사위원 팀은 AIDS 위기에 대한 서사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온 목소리와 경험을 종합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별된 7편의 단편 영상은 현대 주류 문화가 논하는 HIV와 예전 Visual AIDS 제작물과 확연히 차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작가 모두 HIV 감염 예술가인 사례는 이번 프로그램이 처음이다. 전 세계 5개국에서 작업하는 올해 참여작가 대부분은 전염병의 전환점이 되었던 1996년 HIV 감염인의 수명을 확연히 개선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치료의 도입 이후 HIV 진단을 받은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 작품영상들은 다채로운 현대적 이슈와 경험을 담아 AIDS 위기 초기 시절을 특정하던 비극, 상실, 또는 영웅주의와 같은 표현과는 대조되는 명확히 현재를 대두한다.

《Being & Belonging》중 슬로건 “미검출은 감염불가(Und etectable=Untransmittable, 혹은 U=U)”을 참조하는 작품들이 있다. 해당 문구는 성공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로 사람 몸에 있는 HIV 양을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HIV 옹호자들에게 이 논리는 감염에 대한 불안을 간단명료하게 해소 시킬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김재원(Jaewon Kim)과 클리포드 프린스 킹(Clifford Prince King)은 각각의 시적 언어로 HIV 감염인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고찰하며, U=U 시대에 필수적인 서사들을 새로 주입한다.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이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인 대다수가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속한 나라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과 이윤을 추구하는 제약 회사들로 인해 금액이 높은 HIV 치료제에 대해 일부 국가의 정부는 “고비용 환자”와 HIV 감염인에게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타협한다. 본 상영회에서 관객은 콜롬비아 정부가 지원하는 약물로 황달과 기타 부작용을 겪는 카밀로 아코스타 헌터텍사스(Camilo Acosta Hunterterxas)와 산티아고 레무스(Santiago Lemus), 그리고 멕시코의 식민주의와 의료 접근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조엘 썬포알테카(Jhoel Zempoalteca)와 라 예리(La Jerry)의 이야기를 듣게된다.

《Being & Belonging》은 통계로 평탄화되는 HIV와 관련한 사회적 후작용에 주목하고 생기를 불어 넣는다. 카밀라 아르세(Camila Arce)는 제도적 방치로 사망한 동료들을 위해

프로그램 소개

맞서는 아르헨티나의 젊은 HIV 감염인 세대의 목소리를 키워준다. 카린 헤이즈(Karin Hayes)와 다비나 “디” 코너(Davina “Dee” Conner)는 협업해 미국의 HIV 감염 흑인 여성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 노골적인 차별, 그리고 비가시성에 대한 논의를 엮어낸다. 그리고 미키키(Mikiki)는 주사 약물 사용에 대한 토의를 비난과 처벌이 아닌 쾌락과 유대감에 중점을 맞춘 파격적인 관점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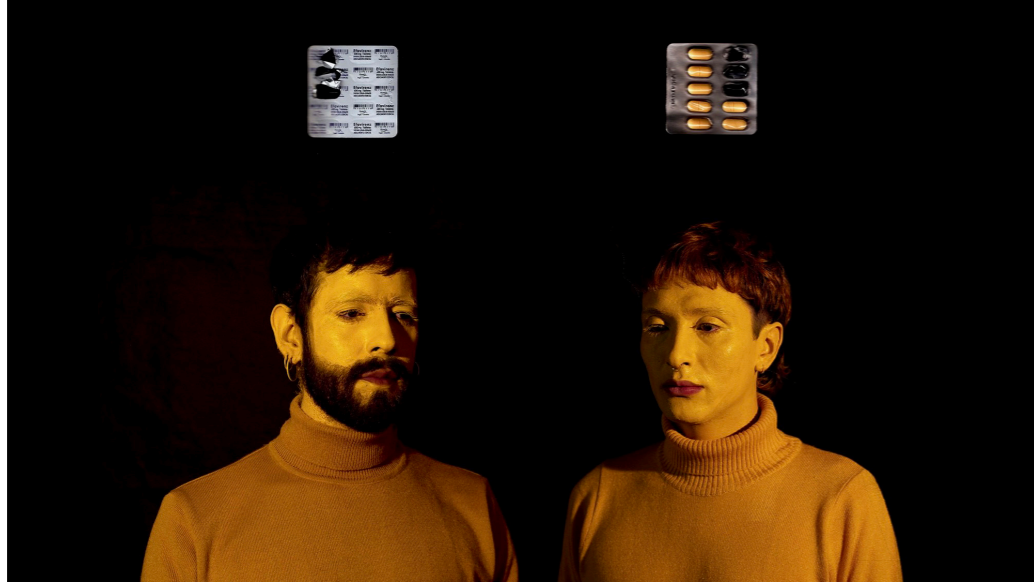
긴밀한 일인칭 시점들을 따라가는 《Being & Belonging》은 흔히 간과되는 이야기들에 깊이감과 통찰력을 부여하며 소속감을 일궈내기 위한 HIV 감염인의 인내와 예술성을 부각 시킨다. 7편의 작품영상은 작가와 작가가 속한 친밀한 공동체가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더 넓은 사회정치적 맥락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개인 관계가 되었던, 정치적 구조에 맞서거나 심지어는 HIV/AIDS의 주류 서사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되었던, 스스로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다양한 언어, 국가, 그리고 정체성을 거쳐, 《Being & Belonging》은 어떠한 정형화된 HIV 감염으로 인한 삶의 형태와 그 경험이 표상되는 방식을 파괴하는 새로운 이미지, 이야기, 그리고 감각을 제안한다. 영상들을 관람하며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HIV에 대한 나의 이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 출처 중 HIV 감염인의 관점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가 HIV 감염인의 정서적 경험에 공감하고 개인의 삶 속 미묘한 차이들이 발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 자료집은 테오도르 케르(Theodore Kerr), 블레이크 파스칼(Blake Paskal), 그리고 카일 크로프(Kyle Croft)가 만들었고, 애론 파울러(Aaron Fowler)가 디자인했다. 콜렉티브 What Would an HIV Doula Do?와 케르(Kerr)가 더 뉴 스쿨에서 가르친 2022년 가을학기 수업 “추모하며 살아가는 일상: 미국 HIV/AIDS 전염병에 대한 역사와 현재(Life During Memorialization: History and the Ongoing Epidemic of HIV/AIDS in the USA)”의 학생들이 중요한 관점들을 제공했다.

영상의 국문 자막 번역은 조우희가, 프로그램 번역은 류다연이 맡아 진행했으며, 디자인물은 이경민의 도움으로 제작했습니다. 상영 및 진행을 위해 도움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산티아고 레무스 & 카밀로 아코스타 헌터텍사스, 〈노란 사람들〉
Santiago Lemus & Camilo Acosta Huntertexas, *Los Amarillos*



10'16"

〈노란 사람들〉은 시와 초현실적인 풍경, 그리고 추상화된 몸들을 통해 콜롬비아에 사는 HIV 감염자들 중 일부가 저가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로 겪는 부작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콜롬비아의 HIV+ 사람들은 이 약의 많은 부작용 가운데 황달(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에 많이 걸리며, 이는 HIV 감염 여부를 드러내는 일종의 지표로 그들을 낙인과 배척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낙인에 맞서 작업하는 작가 산티아고 레무스와 카밀로 아코스타 헌터텍사스는 일련의 퍼포먼스적인 동작을 통해 황달의 노란 피부를 과장한다. 관객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알약을 섭취하는 작가의 피부 톤이 원래 색조에서 점차 짙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황달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의 이름은 화면에 굵은 글씨체로 번쩍 등장한다: 에파비렌즈, 아타자나비르, 리토나비르. 클로즈업으로 촬영되어 추상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레무스와 아코스타의 몸은 밝은 노란색 풍경, 동식물, 일반 가정 제품과 대조된다. 이러한 시각적인 비유는 영상 전반에 불안감과 소외감을 주입하고, 두 작가가 공공장소로 나갈 때 한 층 증폭된다.

“열렬한 혁명을 꿈꾸며” 진홍색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다루나비르 알약으로 피부를 칠하는 작가들의 퍼포먼스로 영상은 끝난다. 레무스와 아코스타 헌터텍사스는 접근 가능한 치료가 고통과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동반되지 않도록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개시로 자신들의 몸을 내세운다.

토론 질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황달 증상처럼 에이즈 위기 시대 초기에는 자주색 병변(카포시 육종)과 안면 쇠약이 HIV 감염을

가시화하는 신체적 증표들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장애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건강을 신체적 특징들로 정의할 때 어떤 결과를 낳나요?

—〈노란 사람들〉은 콜롬비아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맞춰 빛어진 작가의 삶 속에서 작가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HIV 약과 맺은 복잡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코로나나 원숭이 수두 백신, HIV 약물, PrEP, 피임약, 항우울제 등의 치료법을 떠올리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약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이나 난관들을 마주하셨나요? 약과의 관계로 인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작가 소개

산티아고 레무스(he/him)는 유기물, 이미지, 사운드로 미술, 자연, 환경 간의 관계성을 탐구한다. 그는 Tomamos la Palabra의 공동 설립자다.

인스타그램: @santiagolemuss

웹사이트: santiagolemus.com

Visual AIDS 프로필: <https://visualaids.org/artists/detail/santiago-lemus>

카밀로 아코스타 헌터텍사스(he/him)는 실험 영상을 주로 하는 시각 예술가다. 그는 House of Tupamaras의 공동 설립자며, 퍼포먼스 콜렉티브 Street Jizz 멤버다.

인스타그램: @huntertexasvideo

웹사이트: huntertexas.tumblr.com

Visual AIDS 프로필: visualaids.org/artists/detail/camilo-acosta

카밀라 아르세, 〈수직 추억〉
Camila Arce, *Memoria Vertical*



4'41"

1994년생 카밀라 아르세는 HIV에 감염되어 태어났다. 그녀는 아르헨티나에서 HIV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1세대 “수직자들(verticales, HIV에 감염되어 태어난 사람)”에 속한다. 아르세의 시와 활동주의를 중심으로 〈수직 추억〉은 분노, 슬픔, 유대, 피로, 끈기를 포괄한 넓은 감정의 폭을 꾸밈없이 전달한다.

영상은 다소 냉엄한 통계로 시작한다. 아르헨티나에서 HIV 감염 임산부의 아이 중 5%는 HIV 양성으로 태어난다. 해당 국가는 아직 HIV에 감염된 아이들이나 임산부에서 아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전시키지 않았을뿐더러, 아이들에게 특화된 HIV 약물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저명한 소아과 의사 아벨 알비노가 2018년 아르헨티나 상원에게 HIV가 콘돔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거짓된 발언을 하는 오디오 클립이 들려온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정책 실패를 바탕으로, 아르세는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을 직접 소리 내어 전달한다. 그 과정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시위, 모임, 그리고 활동주의를 통해 공유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르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속한 1세대 수직자들이 성인이 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부모님이나 보호자를 통해서가 아닌, 우리 목소리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론 질문

—아르헨티나에서 HIV 감염인 중 일부는 스스로를 “수직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상응하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공유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단어나 명칭이 있나요?

—영상에서 아르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거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게 저의 복수예요.” 여러분은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며 성장했나요? 그 이후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왔나요?

—〈수직 추억〉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청년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젊은 세대는 어떤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청년들의 비전을 사회는 어떻게 더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작가 소개

카밀라 아르세 (she/her)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아티비스타(artista; 스페인어로 아티스트(artista)와 활동가(activista)를 결합한 용어)다. 27년 전 그녀는 HIV에 감염되어 태어났다.

인스타그램: @sidiosa

Visual AIDS 프로필: <https://visualaids.org/artists/camila-arce>

다비나 “디” 코너 & 카린 헤이즈, <우리는 여기 있다 — HIV 감염 흑인 여성들의 목소리>
 Davina “Dee” Conner & Karin Hayes, *Here We Are: Voices of Black Women Who Live with HIV*



6'53"

“제가 HIV랑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HIV가 저랑 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주 잘 태워다 주고 있죠.” 이는 <우리는 여기 있다>에 출현하는 일곱 명의 흑인 여성 중 디어드레 존슨(Deirdre Johnson)의 말이다. 영상에서 여성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각자만의 우여곡절을 거쳐 얻게 된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으로 엮여지며, 존슨의 위트 있고 위풍당당한 발언이 이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존슨과 더불어 에바니 터크(Evany Turk), 스테이시 제닝스-생호르(Stacy Jennings-Senghor), 아신티아 라이트(Acintia Wright), 알레시아 트라멜-맥인타이어(Alecia Tramel-McIntyre), 타메라 가렛(Tamera Garret), 그리고 감독 다비나 “디” 코너와의 인터뷰가 동행한다.

여러 목소리가 중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영상을 통해 관객은 여성들이 경험한 진단받았을 때의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 흑인 여성 엄마로서의 경험과 관련한 편견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와 동시에, 코너와 헤이즈는 이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번영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은 과정에 주목한다. 흰색 의상을 입은 채 일곱 명의 여성들이 따로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며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 있다>는 끝난다.

본 영상은 오랜 시간 HIV 감염인으로 살아온 공동 연출자 코너의 경험과 그녀의 장기 멀티플랫폼 쇼 Positively Dee's Discussion(youtube)에 기반한다. 코너의 능숙한 인터뷰 능력은 여성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편하고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는 모습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여기 있다>는 모든 방면에서 커뮤니티의 연대력, 그리고 HIV 감염 흑인 여성 개개인의 경험과 강인함의 집합을 축복한다.

토론 질문

—영상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들은 흑인 여성이 대중적 논의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접한 AIDS 관련 미디어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언급되고 어떤 사람들이 소외된다고 생각하나요? HIV 감염인이거나, 당신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사람을 미디어에서 찾아 볼 수 있나요? 표상(representation)은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HIV 감염인이 아니라면, 표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HIV 감염인의 모습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영상 속 여성들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삶 속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돌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건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작가 소개

다비나 “디” 코너(she/her)는 HIV 교육자, 국제적 강연가, 그리고 팟캐스트 진행자이며, 1997년부터 HIV 감염인으로 살아왔다.
 인스타그램: @positivelydee
 웹사이트: <https://linktr.ee/davinaconner>

카린 헤이즈(she/her)는 여러 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제작자다.

웹사이트: huntertexas.tumblr.com

Visual AIDS 프로필: visualaids.org/artists/detail/camilo-acosta

김재원, <뉘앙스>
 Jaewon Kim, *Nuance*



6'13"

<뉘앙스>에서 김재원은 어느 연인 관계의 감정적 풍경을 42장의 사진 모음으로 묘사한다. 나레이션과 사운드트랙에 맞춰 등장하며 의미를 쌓아 가는 사진들은 이 연인 관계 속 미묘하게 변화하는 추상적인 감정선을 조합한다.

따뜻함과 애뜻함으로 시작하는 영상은 점차 내레이터 자신과 파트너 사이의 “틈,” 그리고 양성/음성, 안전/위험과 같은 차이에 대한 불안과 갈등으로 변질한다. 하지만 영상이 끝날 무렵 음악이 커지고 내레이터는 자신과 파트너 사이 경계를 해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는 ‘그렇다’와 ‘아니다’로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도 괜찮았고, ‘안전’과 ‘위험’의 경계 또한 흐려지고 있었다.”

<뉘앙스>의 실험적인 형식은 많은 것을 관객의 해석에 맡기지만, ‘미검출은 감염 불가(undetectable=untransmittable, 혹은 U=U로 축약)’라는 개념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시도였다고 작가는 말한다. U=U는 HIV 감염인이 치료도 받고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미검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뉘앙스>는 U=U의 과학적인 사실을 넘어 혈청 불일치 관계(서로 다른 HIV 감염 상태를 가진 사람들 간의 관계)의 심리적인 측면과 신뢰할 수 있는 약물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이 내린 오명으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친밀감을 탐구한다.

토론 질문

—<뉘앙스>에서 작가는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택한다. 영상에서 두 주인공의 몸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작가가 미학적인 전략으로서 부재와 불투명성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이러한 작업 형식은 더 직설적인 표현과 가시성을 지닌 영상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가능성들을 제안하나요?

—실험 영상은 흔히 형식적인 요소들(예. 빛, 소리, 그리고 다른 미학적 선택들)을 통해 의미를 일궈내거나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체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뉘앙스>를 video.visualaids.org에서 다시 관람해 보길 바랍니다. 재관람할 때 어떤 것에 주목하게 되었나요? 시각적인 요소와 사운드, 그리고 대사 사이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발견했나요?

—우리는 주로 연인과의 갈등이나 긴장감을 안 좋은 징조로 생각하지만, 이는 소통과 친밀감에 필연적인 요소 일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커플은 혈청 불일치 관계라는 점에서 더 많은 대화를 요구하여 어쩌면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진 적이 있나요?

작가 소개

김재원(he/him)은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이다. 그는 영상, 사진, 설치 작업을 통해 퀴어와 HIV감염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스타그램: @etc.1
 웹사이트: <https://linktr.ee/jaewonkim>
 Visual AIDS 프로필: <https://visualaids.org/artists/jaewon-kim>

미키키, <빨간 깃발들, 어느 사랑 편지>
Mikiki, *Red Flags, a love letter*



9'30"

미키키는 <빨간 깃발들>에서 주로 선정적으로 다뤄지는 켄섹스(chemsex) 또는 '파티와 플레이(party and play)' 신 속 게이 남성 사이 주사 약물 사용('슬래밍 slamming'이라고도 불림)을 보다 중립적으로 묘사하려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마약 사용은 남용과 부도덕적인 행위라는 편협한 관점에서 관찰되고, 사용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쾌락과 소속감에 초점을 맞춰 마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더욱이 적다.

<빨간 깃발들>을 위해 미키키는 슬래밍 신에 참여하는 여러 친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주사 약물 사용에 찍힌 낙인으로 영상에서는 제임스와 알리 두 명만 변조하지 않은 목소리로 출연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의 친구 제임스와 알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마약 사용의 동기를 헤아리는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처벌에 집중하는 경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제임스는 "좋은 중독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관객에게 던진다. "위험할 수록 더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제대로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하자는 거죠. 배워야 되는 기술이 있어요."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켄섹스를 둘러싼 오명은 종종 HIV와 연관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 위험요소로 켄섹스가 포함되는데, 이는 "나쁜 선택들" 혹은 부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로써의 HIV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 <빨간 깃발들>에 대해 미키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약 사용은 나쁜 사람들의 선택, 혹은 좋은 사람들의 나쁜 선택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 방식 외 다른 접근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용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들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 질문

—영상에서 알리는 마약 사용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딱히 선택할 것 없이 약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약에 대해 알아가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 계급, 지리, 인종,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하면서 마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접한 조언들을 떠올려 보세요. 메스, 아편유사제, 대마초, 알코올, 카페인 등 각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 위험, 책임, 그리고 해로움을 고려해 보세요. 약물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나요?

—추상적인 그림과 계단을 내려가는 누군가의 시점이 중첩된 화면으로 시작하는 본 영상은, 취했을 때 볼 법한 팔다리, 동료, 소리가 뒤섞인 불협화음의 글리치가 난무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사운드트랙도 비주열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상을 보며 주목한 작가의 형식적인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영상의 개념적 맥락과 연관되는지 논의해 보세요.

작가 소개

미키키(they/them)는 퍼포먼스 및 영상 작가이자 캐나다 옥다홀극(Ktaqmkuk, 오늘날 '뉴펀들랜드(Newfoundland)'라 불리는 원주민 토지)의 아카디아(Acadia)/미그마흐(Mi'kmaq, 캐나다 원주민) 및 아일랜드계 퀴어 공동체 건강 활동가다.
인스타그램: @mkkultra
웹사이트: <https://menshealthproject.wixsite.com/mikiki>
Visual AIDS 프로필: <https://visualaids.org/artists/detail/mikiki>

조엘 켄포알테카 & 라 예리, <벌레 두 마리>
Jhoel Zempoalteca & La Jerry, *Lxs dxs bichudxs*



8'57"

일련의 멕시코 전통 무용으로 구성된 <벌레 두 마리>*는 '메스티사헤(mestizaje)'를 비판한다. 메스티사헤란 어떠한 인종적 단합성의 환상을 강조하는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다. 구체적으로는 멕시코를 스페인 사람과 멕시코 원주민 간의 혼혈 후손들을 칭하는 '메스티소스(mestizos)'의 국가로 통틀어 설명하는데, 이는 멕시코에 사는 흑인과 원주민을 지속적으로 억압해 온 인종별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시 된다.

영상에서 스페인 식민자들을 조롱하는 우에우에스(Huehues)와 같은 다양한 전통 무용이 선보여진다. HIV 클리닉에서 약통을 마라카로 사용하고 백인 가면을 착용한 작가들은 우에우에스에 담긴 역사적 풍자를 HIV의 오명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시킨다.

작가들은 메스티사헤 개념 속 자신들의 위치를 고민한다. 첫 춤이 끝날 무렵, 라 예리는 착용하고 있던 가면을 벗는데, 이는 백인성을 벗겨내는 것을 상징한다. 라 예리보다 피부가 하얀 켄포알테카는 영상의 마지막 챕터까지 가면을 쓰고 있다. 주요 장면에서 켄포알테카와 그의 어머니의 말이 교차하며 켄포알테카는 자신의 백인성을 비판한다. "식민주의자의 혀와 얼굴이 이제 내 것이 되었을때? ... 썼을 때, 우리를 몰살의 공범으로 만드는 가면." 이로써 가면을 벗은 켄포알테카는 라 예리와 함께 땅에서 약통을 "수확"하는 마지막 춤을 춘다. 그들은 HIV 감염인에게 약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한 정부에 맞서 단결한다. 색을 보기를 거부하는 메스티사헤와는 다르게, 두 작가는 각자 백인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직시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자한다.

*영상의 제목 'Lxs Dxs Bichudxs'은 스페인어로 HIV/AIDS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속어로 사용되는 '엘 비초(el bicho, 벌레)'에서 유래한다. 또한 작가들은 스페인어 특성상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대안으로 어미 '-x'를 사용한다.

토론 질문

—영상은 스페인 정복자(conquistador)들이 1519년 멕시코를 침입하는 장면을 그린 데시데리오 에르난데즈 소치시오친(Desiderio Hernandez Xochitiotzin)의 벽화와 토착 문화를 분열시키고 선택적으로 자신들의 사회로 통합한 정복자들의 권력 행사를 설명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HIV 감염인의 경험과 식민주의가 낳은 차별들은 어떻게 얽혀 있나요?

—영상에서 작가들은 젠더 규범을 가지고 옵니다. 역사적으로 우에우에스 춤은 남성이 추는 것이고, 두 번째 춤은 모계사회를 존중하는 후치탄 지역 전통과 관련 있습니다. 작가들은 언어와 복장으로 통상적인 젠더 역할과 관념을 한 층 복잡하게 만듭니다. 젠더 규범을 초월하는 그들의 퍼포먼스는 어떻게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나요?

작가 소개

조엘 켄포알테카(he/him)는 멕시코의 틀라스칼라에서 태어난 시각 예술가이자 교육자다.
인스타그램: @jhoelze
Visual AIDS 프로필: <https://visualaids.org/artists/jhoel-zempoalteca-1>

라 예리(they/them)는 멕시코의 후치탄에서 태어나고 자란 논바이너리 민속 무용가다.
인스타그램: @_lajerry
Visual AIDS 프로필: <https://visualaids.org/artists/la-jerry>

클리포드 프린스 킹, 〈삶의 키스〉 Clifford Prince King, *Kiss of Life*



7'16"

클리포드 프린스 킹의 영상 〈삶의 키스〉 중심에는 소망이 있다. 보살핌, 호혜성, 이해심으로 가득한 관계들을 향한 소망. 본 영상에서는 여러 HIV 감염 퀴어 흑인 남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등장인물들은 데이팅, 감염 사실 공개 여부, 자기애와 관련한 각자만의 고난을 전달한다. 옛 연인부터 엄마, 그리고 데이팅 어플의 낯선 상대방까지, 영상 속 주체들은 그들의 관계에 HIV가 미친 영향에 대해 재고해 본다. 관객은 미검출은 감염불가(undetectable=untransmittable)의 세대와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리워졌던 섹스 및 데이팅 세대 간의 극명한 차이를 통찰하는 어르신 마이클 바렌 위드로우(Michael Barren Withrow)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다. 디안젤로 로벨 윌리엄스(D'Angelo Lovell Williams)는 데이팅 어플에서 감염 사실을 공개하고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경험을 토로한다. 그들은 HIV 감염인이 자신의 서사를 직접 구현할 필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터뷰 사이사이 시적인 낭독과 숭고한 자연의 이미지가 얹힌다. 킹에게는 HIV와 연관된 서사를 아름답게 표현해 선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삶의 키스〉는 HIV 감염 퀴어 흑인 남성의 편협한 표상에 반박한다. 만연한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자기 수용(self-acceptance)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위드로우는 단언한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을 받아 줄 다른 사람들.”

영상은 시 낭송과 함께 킹이 사워하는 장면이 이어 샷데이의 〈키스 오브 라이프(Kiss of Life)〉를 커버한 노래 아래 킹과 그의 애인이 나무가 우거진 흙길을 따라 달려오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마지막 순간들은, 제목과 같이, 사랑과 공동체 때문에 가능한 재탄생, 정확, 그리고 복귀를 던지시 나타낸다.

토론 질문

—미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HIV를 더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HIV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아름다움은 어떤 역할을 지녀 왔나요?

—HIV와 인간관계가 함께 거론될 때, 대화는 주로 연인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삶의 키스〉는 단일적인 관계성에서 벗어나, HIV가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HIV 감염으로 형성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친구/공동체 네트워크를 다룹니다. HIV 감염이 로맨틱하고 성적 관계를 넘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할 때 어떤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본 영상은 마이클부터 디안젤로까지를 포괄하는 일종의 세대 간의 대화를 형성합니다. 마이클과 디안젤로는 HIV 감염에 대한 어떤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나요? AIDS 위기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변해 왔으며, 옛날 HIV 감염인 세대와 현재 세대를 비교했을 때 존재하는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작가 소개

클리포드 프린스 킹(he/him)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는 작가다. 킹은 규범적이고 일상적인 환경 속 기록하는 자신의 친밀한 관계들을 통해 퀴어 흑인 남성으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한다.

인스타그램: @cliffordprinceking

웹사이트: cliffordprinceking.com

Visual AIDS 프로필: <https://visualaids.org/artists/detail/clifford-king>

용어 사전

Chemsex or party and play (PnP)

캠섹스, 혹은 파티와 플레이(PnP)는 마약이 동반된 성생활을 뜻한다. 캠섹스는 메스암페타민(크리스탈 메스, 티나, 혹은 T로도 알려짐), GHB, 코카인, 케타민, MDMA를 포함한 여러 마약의 사용을 가리킨다. (출처: Healthline)

Harm Reduction

위해 저감은 사회에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활동(예. 섹스나 마약 사용)에서 비롯되는 피해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들을 가리킨다. 위해 저감은 1980년대 초 의료진들이 주사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약 사용을 억제하기보다는 깨끗한 주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현대적인 개념이다. 다른 위해 저감 예시로 콘돔, PrEP, 안전 벨트 등이 있다.

HIV Criminalization

HIV 범죄화는 성접촉(HIV를 전염시킬 수 없는 깨물기나 침 빨기와 같은 행위 포함) 전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잠재적인 HIV 노출 및 혐의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HIV 범죄화는 흔히 HIV 감염이 발생하지도 그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최대 30년의 형 선고와 성범죄자 등록을 요구한 바 있다. (출처: AIDS Watc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는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한다. 이는 면역세포인 CD4 세포 (T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대상을 압과 다른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치료가 방치될 경우, HIV는 추천성면역결핍증(AIDS)를 일으킬 수도 있다. HIV 감염인은 면역세포수가 200 cell/mm이하이거나 특정 질병 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에이즈 진단을 받게 된다.

Intersectionality

교차성은 “권력이 어디에서 출현하고 충돌하는지, 어디에서 맞물리고 교차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단순히 이쪽에 인종 문제가 있고, 젠더 문제가 있고, 저쪽에 계급이나 LGBTQ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단일적인 사고방식은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주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출처: 킴벌리 크렌쇼)

Jaundice

황달은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다. 황달은 약물 부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영어에서 이 단어는 씹쓸함, 원망 또는 질투를 의미할 수도 있다.

Pre-Exposure Prophylaxis (PrEP)

노출 전 예방요법(PrEP)은 HIV 음성인이 HIV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해 복용하는 일일 약이다. PrEP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처방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EPLocator.org.

Post-Exposure Prophylaxis (PEP)

노출 후 예방요법(PEP)은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감염 확률을 현저히 낮추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이다. PEP는 모든 응급실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Serodiscordant

혈청 불일치는 HIV 감염인과 HIV 음성인 파트너, 즉 HIV 감염 여부가 서로 다른 연인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Stigma

낙인은 수치심이나 편견의 징표다. HIV 감염인은 연인 관계에서도 물론, 여러 방식의 낙인을 경험한다. HIV와 같은 질병이 낙인찍히면 사실 정보가 왜곡되고 다음과 같은 특정 행동과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

HIV 감염인은 HIV에 감염될만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 HIV 감염인에게 의료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동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공동체 내 특정 인물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행동

(출처: Center for Disease Control)

Undetectable

미검출은 정기적인 HIV 약물 치료를 통해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미검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미검출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다. 이는 HIV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HIV 감염인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뜻한다.

Vertical Transmission or perinatal transmission

수직감염 혹은 주산기 전염은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통해 산모에게서 아기로 HIV가 전염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HIV 감염 임신부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때, 산모에서 아기 전염은 거의 0%로 감소된다. (출처: NIH)

DAY WITH(OUT) ART 2022: BEING & BELONGING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16:00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B1

Saturday, December 10th, 2022, 16:00

Art Sonje Center Art Hall

B1, 87, Yulgok-ro 3-gil, Jongno-gu, Seoul

참여작가

산티아고 레무스 & 카밀로 아코스타 헌터텍사스

(콜롬비아)

카밀라 아르세 (아르헨티나)

다비나 “디” 코너 & 카린 헤이즈(미국)

김재원 (한국)

미키키 (캐나다)

조엘 샘포알테카 & 라 예리 (멕시코)

클리포드 프린스 킹 (미국)

Featuring works by:

Santiago Lemus & Camilo Acosta Huntertexas (Colombia)

Camila Arce (Argentina)

Davina “Dee” Conner & Karin Hayes (USA)

Jaewon Kim (South Korea)

Mikiki (Canada)

Jhoel Zempoalteca & La Jerry (México)

Clifford Prince King (USA)

《Being & Belonging: 토크 프로그램》

김재원 (시각예술가)

나영정 aka 타리

(퀴어활동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연구모임 POP)

남웅

(미술평론가/인권활동가, HIV/
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서보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 HIV/
AIDS인권연대 나누리+)

모더레이터: 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Being & Belonging: Talk Program》

Jaewon Kim (visual artist)

Tari Young-jung Na (queer activist)

Woong Nam (activist and art critic)

Bo Kyeong Seo (anthropologist)

moderated by Horim (activist)

영상 번역: 조우희

프로그램 번역: 류다연

디자인 도움: 이경민

Subtitle translation: Woohee Cho

Program translation: Dayun Ryu

Graphic design support: Kyungmin Lee

협력: 아트선재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artner Organizations: Art Sonje Center,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Haengseongin)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Visual
AIDS



ASJ
C



ARTS COUNCIL KOREA